이달의 책 후보 도서

《철학에는 유머가 없는가》 이상하 지음 | 철학과현실사 | 238쪽 | 값 10,000원

철학은 골치아프고 어렵기만 한 것인가. 책은 흥미롭고 자유로운 문체로 서양철학의 역사와 테마를 서술, 그런 선입견을 없앤 저작물이다. 심층적인 철학적 테제를 대화체와 소설 양식으로 변용해 〈신에 의해 설계되지 않은 우주〉, 〈인간은 원숭이의 후손인가〉, 〈무기력해진 철학자들〉 등을 알기쉽게 풀어내고 있다.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전2권) 한필원 지음 | 북로드 | 각권 35쪽 내외 | 값 15,000원

20년 동안 전통마을을 답사해온 저자가 들려주는 우리 고유의 공간 철학에 관한 이야기다. 언뜻 불합리하고 불편해 보이는 듯하나, 기실 가장 합리적인 위상기하학적 구조를 간직한 게 우리 전래의 주거공간이다. 책은 전국의 전통마을을 두루 소개하면서 그 안에 구현된 조화롭고 환경친화적인 삶의 지혜를 전해준다.

《광고로 읽는 한국사회문화사》 마정미 지음 | 개마고원 | 334쪽 | 값 15,000원

한말에서부터 지금까지 한때를 풍미했던 광고를 통해 그 시절의 사회상과 문화상을 간접 묘사하는 책이다. 저자는 '광고주와 광고인, 소비자들 간에 소통의 도구'로 기능한 게 광고라고 정의하며, 해방 이전과 군부독재 시기,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탈근대 시기 등 3부분으로 나누어 광고 이야기를 펼쳐보이고 있다.

《조용한 열정》 조 은 지음 | 정경자 사진 | 마음산책 | 218쪽 | 값 9,500원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더듬으며, 역설적으로 내면의 단단한 뿌리를 확인하는 작업. 책은 16편의 산문과 68장의 사진을 통해 그처럼 뜨겁지도, 냉랭하지도 않은 '조용한 열정'의 궤적을 풀어낸다. 가족, 제도교육과 불화했고, 죽음을 생각하며 상처 입었던 날들이 다시 성숙으로 발효되는 과정을 조용하되 열정적으로 들려준다.

《지붕낮은 집》 임정진 지음 | 푸른숲 | 240쪽 | 값 8,000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에 이은 청소년 소설. 1970년대 서울의 산동네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소녀와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부모 세대가 살았던 그 시절,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면서도 서로 기대며 희망을 잃지 않은 산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산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청소년들에게 새롭게 전하고 있다.

《온달, 바보가 된 고구려귀족》 이기담 지음 | 임기환 기획 | 푸른역사 | 304쪽 | 값 11,900원

'온달은 과연 바보였나?'. 책은 자못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설화의 테두리에서 온달을 끄집어내 역사의 전면에 내세웠다. 픽션 따로 역사적 사실 따로 가둬놓았던 '온달'의 실체를 캐는 한편, 1,400년 후 오늘의 수많은 '바보 아닌 바보' 온달의 캐릭터를 유추하게 한다.

《나무공예》 손영학 지음 | 나무숲 | 98쪽 | 값 13,000원

옛 사랑방, 안방, 부엌 등에서 쓰였던 나무 공예품들의 특징과 쓰임새를 소개하며, 그 속에 담긴 선조들의 멋을 일깨우고 있다. 대구 아트센터 큐레이터인 저자는 3년 여 동안 전국을 다니며 어린이들에게 보여줄 만한 공예품을 찾아냈으며, 친절한 설명과 풍부한 사진 자료로 이를 살려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시민불복종》 이남석 지음 | 그린비 | 304쪽 | 값 12,000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입법에 관한 논의가 전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자는 법리적 타당성에 치우친 기존 양병거 논의와는 달리 정치철학적 접근을 시도해 눈길을 끈다. 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사례를 비교하며 양병거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한편, 종국엔 우리 사회에 팽배한 불관용을 꼬집는다.

《현대의학, 그 위대한 도전의 역사》 예병일 지음 | 사이언스북스 | 336쪽 | 값 15,000원

기초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현대의학 발전에 공헌한 학문적 변천 과정을 소개한 책이다. 주로 노벨상 수상 업적을 중심으로 면역학, 바이러스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등 열 가지 항목에 걸쳐 학문적·역사적 의미를 천착하고 있다. 끝부분에선 생명체 복제와 인간 유전체 계획 등도 다뤄 관심을 모은다.

《나의 생명 이야기》 황우석·최재천 글 | 김병종 그림 | 효형출판 | 348쪽 | 값 11,000원

세계적인 생명공학자 황우석 교수와 동물학자 최재천 교수가 글을 쓰고, 미술계의 거장 김병종 교수가 그림을 그린 책이다. 유년시절부터 지금에 이르는 황 교수와 최 교수의 자전적 술회는, 김 교수의 예술혼이 담긴 그림과 '생명'이란 화두에서 접점을 찾으며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다.

《장정일 삼국지》(전10권) | 장정일 지음 | 김영사 | 각권 320쪽 내외 | 각권 값 8,900원

국내 작가와 삽화로 완성된 '메인드 인 코리아' 삼국지다. 나관중본 등 번역판본에 덧입혀진 중화주의나 근왕주의를 탈각, 우리만의 세계관으로 완성시킨 작품이다. 칠종칠금七縱七擒에서 제갈량의 재덕才德이 아닌 남만南蠻의 저항정신을 부각시키는 등 새로운 시각과 서술로 시종한다.

《백년여관》 임철우 지음 | 한겨레신문사 | 344쪽 | 값 9,000원

반도 서남쪽에 지리한 섬 영도의 '백년여관'에 모인 인물들의 갖가지 사연을 통해 100년 현대사의 족적을 되짚는 장편소설이다. 일제 시대부터 4·3, 6·25 보도연맹사건, 광주항쟁 등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삶과 죽음이 교차한 세월을 견뎌온 사람들의 이야기다.

《마님난봉기》 장차현실 지음 | 웅진닷컴 | 240쪽 | 값 9,500원

억압된 성에 신음하던 여인들의 반격이랄까. 남성의 전유물쯤으로 여겨지던 성역性域을 재치와 기지로 주도했던 조선시대 마님들의 얘기를 코믹하되, 심중한 터치로 그린 만화다. 만화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볼 책이 아니다. '또 하나의 성'이자 인간이길 당당히 요구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저자는 열과 성을 다해 독자들에게 전한다.